

2017년 11월 26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가)

제1963호

王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마태오 25:34)

■ 미사 전례

- 제1독서 : 예제 34,11-12.15-17
- 화답송: (악보 참조)
- 제2독서 : 1코린 15,20-26.28
- 복음환호송: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복음 : 마태 25,31-46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7:00

오전 9:00(영어미사)

오전 11:00(교중미사)

• 평일미사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00

◎ 화답송



❖ 새 우리말 『로마 미사 경본』에 따라 바뀌는 신자들의 응답 부분

(2017년 12월 3일 ‘대림 제1주일’부터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또한 사제와 함께” (신자들의 응답)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제가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 전 신자들의 응답)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 감사기도 마침 영광송 후 아멘



성경의 인물 58 정의를 외치는 아모스

사해 근처인 드고아에서 아모스는 양을 치고 있었다. 어느 날 야훼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모스,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너는 나의 말씀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양을 치고 무화과나무를 가꾸어 먹고 사는 무식한 농부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너는 나의 말을 시키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네가 말하지만 결국엔 나의 말이다. 알겠느냐?”

“어쨌든 알겠습니다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찌아는 유다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다. 당시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의 시기였다. 물질의 풍요는 정신의 빈곤을 가져오기 쉽듯이 윤리와 사회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다. 특히 지도자들은 향락에 빠져 있었다. 상아 침상에서 툇굴고 몸에는 값비싼 향유를 바르고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사치를 즐겼다. 사회의 지도층이 썩고 부패하여 향락과 사치에 빠져있자 덩달아 종교도 겉치레의 형식에 치중하여 종교 본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종교는 무릇 사회를 선도하며 선으로 이끌기 위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세속의 못된 풍랑이 교회를 뒤덮어 더 부패하고 악을 조장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럴 때 교회는 오로지 허울과 형식만 남아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더 나가서 허위와 방탕을 쫓아 교회는 죄를 조장, 방조하는 소굴처럼 되어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거룩한 교회는 악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악행을 일삼는 장소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겉으로 번지르르한 형식에 매이게 되고 외적인 겉치레에 몰두하여 내적인 힘과 정신은 소멸되기 일쑤다.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와 비교할 때 반성해 보아야 할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물질의 풍요가 극성을 부려 부패할수록 서민들은 오히려 더 착취당하고 소외되기 마련이다. 당시에든 가진 자들은 빈민들을 착취하고 율린하여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아모스 예언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위선과 고집에 대해 엄하게 꾸짖고 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사흘마다 십분의 일세를 바쳐보아라. 누룩 든 빵을 감사 제물로 살라바치고, 자원제물을 수선스럽게 드려보아라. 너희가 하는 것이란 고작 그런 것이 아니냐?” (아모 4,4-5)

허위와 기만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의식을 뻔뻔스럽게 바치고 있는 당시의 종교생활을 꼬집고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정체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너무나 외적인 모습과 발전, 물질적인 풍요에 매달려 내적으로 빈곤해지는 종교의 행태가 없지 않아 자칫 외형과 형식만 남게 되는 종교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아모스의 예언은 우선 당시의 지도층, 특히 위정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다. 사제들은 아모스의 활동에 반감을 품고 모함과 공격을 감행한다.

베델의 사제 아마지아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아모스를 고소하였다

“아모스라 하는 한 촌놈이 와서 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 자는 이 나라를 망칠 소리만 지껄입니다. 임금님도 칼에 맞아죽고 백성은 적군의 포로가 된다는 망발을 늘어놓아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놈을 없애 주십시오.”

사제들과 종교의 타락상을 신랄하게 비판한 아모스는 그들에게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개혁의 소리와 건전한 비판이 체제에 대한 도전과 반역행위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릇 지도자는 귀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어떤 현인은 사람을 등용할 때 피해를 무릅쓰고 앞에서 직언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다고 한다. 아침과 혀에 발린 소리는 우선 듣기에 좋지만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모스는 실제로 면전에서 심한 모욕과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사제 아마지아는 아모스 면전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예언자라고 사칭하는 이놈아, 여기서 당장 꺼져라. 유다로 가서 예언자 노릇하면서 밥을 빌어먹어라. 여기서는 하느님을 팔아 한마디도 떠들지 말아라.” 그러나 어떤 공격과 모함에도 아모스는 당당했다. 열면에서 계속

성삼소식

첫 토요 신심미사

- 일시: 12월 2일(토) 오전 8:00
※ 미사 전에(7:20am) 묵주기도 있습니다.
- 성삼 켈기도회 임원회의 미사 후 501호.

울뜨레아

- 11월 27일(월) 오후 7:00 101호.

전례 미사 해설단 교육

- 11월 30일(목) 저녁 7:30 미사 후, 성당.

사목회의

- 12월 1일(금) 오후 7:00 101호.

푸리아 연차 총 친목회

- 12월 3일(일) 오후 1:15 성당.

소공동체 가정 반미사(오후 8:00)

일시	구역	장 소
11월 28일(화)	6구역 3반	이석환(라파엘)님택
12월 5일(화)	5구역 3,4반	한성준(빈센트)님택

남가주 푸르실료 송년의 밤

- 일시: 12월 2일(토) 오후 6:00
- 장소: 성 바오로 한인천주교회
(1920 S. Bronson Ave. LA 90018)
- 문의: 박 헬레나 ☎213-500-9393

주일학교 · 한국학교 · 청소년

주일학교 휴교

- 11월 26일 Thanksgiving Day 연휴.

동전 모으기(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11월19일	\$27.95	누계	\$1,349.11
--------	---------	----	------------

전 례 봉 사	일시		해설	독서	봉헌	평 일	해설		독서
	금주	07:00	김 미카엘	2구역	5구역		수	고 세실리아	파타마의 성모 Pr
		11:00	박 로사	2반	5반			김 미카엘	성령 기도회
	다음주	07:00	김 테레사	2구역	6구역		목	백 로즈마리	금요 성경반
		11:00	조 프란치스코	3반	1반				

봉사차레
안내

중식봉사	금주	추수감사절 연휴 중식 없음	다음주	2구역 6반
------	----	----------------	-----	--------

다음주	단체명	시간	장소	다음주	단체명	시간	장소
	성경 봉사자	08:30	201호		반장회의	12:30	201호
	주일학교 복사단	12:00	201호		연령회	12:30	101호
	좋은 아버지모임	12:30	502호				

단체 모임

우리들의 정성 (2017. 11. 19 현재)

교무금	5,258.00	교무금 / 건축헌금 / 감사헌금 봉헌(34명) 강장섭, 강호영, 고구현, 구준우, 김교영, 김길중, 김신아, 김애경, 김용재, 김윤자, 박순희, 박우진, 백부기, 변봉진, 송희원, 신순자, 안진환, 양효준, 여왕근, 우순남, 원종희, 이길웅, 이명수, 이영옥, 이영자, 이용배, 이혁주, 장인덕, 정수옥, 조태오, 최정훈, 최진경, 최 호, 태윤주,
주일 헌금	2,136.00	
감사 헌금	200.00	
2차 헌금	1,476.00	

본당 살림

“너희 말대로 난 예언자가 아니다. 양 떼나 물고 땅과먹고 살던 농부였다. 어느 날 야훼께 잡혀 말씀을 전하게 된 사람이다. 이걸 내 뜻이 아니라 야훼의 분부대로 행하는 것이다. 난 욕을 먹어도 박해를 당해도 할 수 없다. 난 단지 하느님의 말씀만을 전할뿐이다.”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담담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는 참된 예언자였다. 그는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예언자였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죄와 벌도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역설했다. 아모스는 또 정의를 강조한 예언자였다. 신앙인으로서의 특권은 동시에 사랑의 의무를 지니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도 비신앙인들 보다 막중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다. (평화신문 2000년 9월 3일 허영엽 신부, '성서의 인물')



고려 여행사 LA 8가와 웨스턴 코너 since 1972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Hair World 최 세실리아 213-268-8549 853 S. Western Ave. 코리아타운 로데오 몰	그레이스 반 필라테스 홍 미카엘라 213-270-5668 바른자세, 바른호흡, 바른마음 위대 태권 홍태봉 미카엘 213-703-6055	 골프레슨 김 레오니아 www.leoniakim.com 213)272-3301	에견 미용 전문 Doggie Do's 강이지미용, 호텔전문 4021 W. Olympic Bl. LA 정혜숙(엘리사벳) 213-820-5880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애실) ☎213-500-9393	이길웅(분도)치과 Vine Dental Care ☎ 323-465-2828 954 Vine St. Los Angeles Melrose + Vine	Howard J. Yang D.D.S. 양효준(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교정치과	코리아 가구점 나쭈지 소파전문 이태리가구, 옥돌침대 ☎ 323-466-3001 117 N. Western Ave. LA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변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평창 성 필립보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100% 국산콩) 강 마틸다 818-325-7171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명 치 과 일반치과, 미용치과, 보철전문 711 S. Vermont Ave #111 ☎(213) 387-2325 Choi, Sang Don D.D.S.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소화 한의원 (체질에 맞는 침, 약) ☎ 213-739-3113 3054 W. 8th st. #202 (8가와 뉴햄프셔 코너) 원장: 박 데레사
리틀도쿄홈마트 생활가전, 의류, 건강, 주방용품 3가+알라메다, 마켓2층 206호 (213)620-0605, (213)280-7911 서 안토니오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213-427-1299
이호제 M.D. 통증 전문의 가정의학,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관절염, 퇴행성, 오십견, 관절/근육 1560 E. Chevy Chase Dr. #355 Glendale, CA 91206 818-246-3306	글로리 달력·플레너 20년 경험 박경조 헬레나 ☎ 213-736-00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 E. 21차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어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친정 김치 맛있는 친정엄마의 손맛 가주/한남/프라자/도레미 김 아오스딩 (213)623-7088	늘 웃는 치과 임플란트, 교정, 보철, 일반치과 966 S. Western Ave. #207 (323)734-3710, (323)734-3720 이 요한 DDS, Ph.D	부동산 케이티 한(카타리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 하겠습니다. C: 213-800-1700 SK Realtor
스튜디오 2000 명품사진의 모든 것 코리아 타운 플라자 3층 213-252-1200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TBS COPIER SCAN FAX 오 마태오 213-248-1338	메디케어 / 메디칼 HMO 가입 무료상담 고국상(발타살) ☎ 818-482-1112